

그들이 맞아죽은 뒤

모두 그 일에 대해

죽은듯이 침묵했다.

나치에 희생된

동성애자들을 추모하며.



1997. 3. 11

장기원 기념관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인권	
등록일	번호
	A11 32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투쟁에 결합한 이유는

(투쟁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1997. 3. 11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무지개 깃발아래...

수신 : 노동자총파업을 지지하는 학생 동지들
발신 : 한국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연대 투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동절,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입니다.

그 동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서 뵈었던 학생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를 보냅니다.

저희 동성애자들도 같은 노동자, 학생으로서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1월 14일 마로니에 집회에서부터 1월 26일 여의도 집회까지 총 7번의 집회에 연인원 72명의 동성애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저희는 전세계 동성애자 투쟁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Rainbow Flag)을 휘날리고, 피켓팅과 <동·인·협 투쟁 속보> 1, 2, 3, 4호를 배포하면서 노동자, 학생들과 함께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도심이 거리시위는 이 나라의 동성애자들에게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동성애자들이 짝을 찾아 헤멘다고 언론에 종종 소개되던 종로 일대는 이번 투쟁에서, 대낮에 동성애자들의 자신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거리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만 대하던 노동자들도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유인물을 자기 회사로 가져가 토론을 벌이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저희들을 한껏 고무했으며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의 투쟁에 대한 반응은 무척 좋았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번 투쟁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고 카메라 공포증(?)을 물리쳤으며, 공공연히 커밍아웃하는 동성애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수 백명의 동성애자들이 투쟁기금을 모아주셨고, 참여자들을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내부에서 동성애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전례없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투쟁을 어떻게 전개됐고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고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가 등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서로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투쟁에 참가하면서 찍은 사진과 비디오 등으로 사진전과 다큐멘터리 상영을 할 생각이며, 투쟁의 경험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가지고 한국동성애운동에 대한 또 다른 방향성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낸 이후 이제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친목 모임들도 많이 생겨났고, 인권운동 단체들로 활발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나라에서 다수의 동성애자들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거칠게 보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토론과 논의의 장에 동성애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더 많은 이성애자들이 그들의 투쟁에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론과 논의는 동성애자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두고 벌어질 때만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토론회는 그러한 논의의 첫발을 디디는 성격을 갖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학생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동인협 연대투쟁위원회)
임시대표 : 연 호 수 (012-1135-1871)

무지개 깃발아래...

식 순

- 5시 - 전시회(동성애자 투쟁 확대 사진, 기배포된 유인물등)
- 6시 - 다큐멘터리 상영 (집회 참여 필름과 LG화재 노조와의 토론회 그리고 집회 참여자 인터뷰등)
한겨레 문화센터 비디오 제작학교 8기생들이 촬영
- 7시 - 본 토론회 시작(사회: 장민아, 양지용)
- 발제문 낭독(발제자: 연호수)
- 8시 - 참여자 토론
- 9시 - 뒷풀이



투쟁일지

- 1월 10일 - 친구사이 회원 3명이 모여 활동계획
- 11일 - 153 서울 모임에서 계획 발표와 모금
- 13일 - 친구사이 사무실에서 지지자 11명이 구체적인 일정 작성
- 14일 - 민주노총 마로니에 집회 참여, 유인물 1호 배포,
종묘까지 거리행진, 낙원동일대에서 유인물 배포
명동 정리집회 참여 (총 10명 참여)
- 15일 - 종묘 집회 참여, 유인물 1호 배포
청계천 일대에서 가두 투쟁
언론에 집단 커밍 아웃 (총 13명 참여)
- 16일 - 범대위 주최 종묘 집회 참여, 유인물 2호 배포
거리 시위, 명동거리에서 독자적인 선전전(총 19명 참여)
- 19일 - 7시에 쇼너에서 모임 가짐
깃발을 계속적으로 올릴 것인가, 일시적으로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일시적으로 한번 내릴 것으로 결정(이유는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집회에 참여 할것에 대한 배려)
- 22일 - 민주노총 수요 총파업 집회 참여, 유인물 2호 배포
깃발 내리고 참여(총 3명 참여), (깃발을 내려서 못찾은 사람이 많음)
- 25일 - 범대위 종묘 집회 참여, 유인물 3호 배포 (총 3명 참여)
한 일반여성과의 인터뷰
- 26일 -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여, 유인물 3호 배포(총 17명 참여)

- 2월 1 일 - 종묘 집회 참여, 유인물 4호 배포

22일 - 서울역 집회 참여

기금 사용 내역서

(1997. 1. 10~ 1997. 3.)

수입내역		지출내역		잔액
서울153 하나로(모금)	86,000	유인물복사비1호(3000부)	160,000	
개인지지금(친구사이)	80,000	2호(2000부)	100,000	
사포(회장님)	100,000	3호(5000부)-편집비 포함	210,000	
친구사이(단체)	50,000	4호(2500부)	130,000	
끼리끼리(모금)	50,000	피켓	10,000	
하이텔 또사모(단체)	200,000	시위용품	4,000	
통장모금액	120,000	사진 인화	10,000	
사람과사람 일일호프(모금)	40,000	깃대	35,000	
나우누리(모금)	90,000	식사비(집회참여자)	25,000	
대구, 경북모임(단체)	60,000	교통비(유인물 운반용)	33,000	
30.40 모임(회장)	50,000	일일 쇼너 모임 운영비	80,000	
광주 모임(단체)	120,000	집회시 음료비	8,000	
시립대 모임	130,000	토론회 팜플렛제작비	220,000	
		포스터 제작비	110,000	
총계	1,176,000		1,135,000	

♥ 위 기금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 주제 : 동성애자들이 노동자투쟁에 간 이유. 그리고 그 후...

발제자 : 연호수

지난 1월 14일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로 한참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무렵 민주노총은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느 때처럼 집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다소 쓸쓸한 분위기가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시선을 자꾸 좌우로 돌리게 만들던 무렵, 일군의 평범한 사람들 예닐곱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부산을 떨더니 깃발을 꺼내고, 피켓을 꺼내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 작은 대열은 금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들의 깃발 색깔의 요란함 때문이었다.

빨·주·노·초·파·보라색의 무지개 깃발을 이 나라 노동자들은 그 때 처음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집회에 온 노동자들은 무지개 깃발 밑에 얹전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호모들'인 것도 몰랐을 것이며, 이 땅의 '호모들'이 처음으로 한낮에, 시내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동성애자들의 집단적인 드러내기(이는 커밍아웃 Coming Out이라고 불린다.)는 자그마한 반향을 일으켰다. 일단 동성애자들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처음에 3명이 발의해서 시작한 이 운동은 지금까지 72명의 동성애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그 중의 반은 레즈비언들이었는데, 그 동안 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그래서 더 자신감 있는 행동을 조직하기 어려웠던) 레즈비언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이 운동의 참여자들을 가장 고무했던 일이었다.

또한 아직 거리로 나올 자신감이 없는 동성애자들은 유인물 제작 등에 쓸 후원금을 조직해 주었다. 단시일 만에 1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아졌다. 그들의 열렬한 후원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이 소수의 고립된 행동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줬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얻은 반응들도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인들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응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덤덤하게(?) 우리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의식 속에 호모포비아 Homophobia(동성애 공포증)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거나 쫓아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이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특히, 우리를 노조로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LG 화재 노동자들과의 토론회는 가장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깔끄러운 점이 없지 않았을 테지만 서로 토론하고, 술 마시며, 웃고 떠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차이점도 없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평가에 대해 너살 좋은 동성애자들 몇몇과 사려 깊고 예의바른 노동자들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식으로 바라봐선 안될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그 동안 거품으로만 존재했던 동성애 논의가 제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실마리들을 풀어낼 수 있다. 그 동안의 동성애자 해방에 대한 논의가 동성애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활동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입증된 것들로 새롭게 이론이 형성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어떻게 해야 동성애 해방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

'왜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갔을까?'

'노동자니까.'

어찌 보면 간단하다.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하다. 위의 물음 속에는 '왜 커밍아웃하는 자리로 집회라는 형식을 빌었는가?', '왜 하필 노동자 집회인가?', '노동법과 동성애자 억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등등의 많은 물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1.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압에 맞서 어떤 방향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2. 기존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움직였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활동의 정치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한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1.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이유가 궁금하다.

왜 동성애자들은 억압받을까? 몰라서 묻니? 당연히 인간의 신체구조와 본능에 어긋나는 연애를 하기 때문이지. 신이 정해진 남녀의 역할이 있는데, 남자끼리(또는 여자끼리) 그런다는 것이 '정상'이니?

동성애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통속적인 신화는 동성애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비정상'이고, '변태성욕자들'이고, '성도착자'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들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서구 문화의 근원이라고 칭송 받고 있는 고대 그리스 사회는 동성애를 최고의 사랑 형태로 미화한 사회이다. 그리스 신화의 아름다운 장면인 아도니스와 아폴론(태양신)의 러브 스토리(아폴론과 푸쉬케의 큐피트의 화살에 의한 강요된 이성애와 비교해 보라)

는 시공을 뛰어넘어 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도니스는 물론 남자였다.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이 젊은 남성과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것이었다.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까지 추앙 받고 있는 사무라이의 무사도엔 사무라이들 사이의 동성애를 규약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예들 말고도 동성애가 용인된 사회는 무수히 많다. 심지어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는 나라에서도 동성애는 발견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성애(性愛)를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신체구조나 인간본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문제를 좀더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제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동성애 억압을 낳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흔히 동성애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고, 정해진 식으로 옷을 입고, 정해진 장소에 자주 가며, 동성애자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특정한 문제에만 부딪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요컨대, 동성애자라는 인간유형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관념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869년 헝가리인 의사 벤케르트 Benkert가 처음으로 사용한 동성애 Homosexuality라는 개념은 이전까지 단순히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개념들(악의적인 의미의 소도미Sodomy나 우월한 의미의 우라니언 러브Uranian Love 등)과는 다르게 동성애자라는 인간유형과 다른 성적 지향을 따르는 인간유형을 구분하는(성적으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고안되었다.

왜 하필이면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관념이 생겨났을까? <커밍 아웃>의 저자 제프리 위크스 Jeffrey Weeks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전개 양식은 산업자본주의가 승리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족과 성관계가 개조되는 과정의 일부로 바라볼 때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식 담론에서 이제 는 진부한 문구가 되어버린 개념과 의미 들, 예컨대 '주부' · '매춘부' · '아동'



의 의미나 '동성애자'라는 개념 등이 근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모든 이런 변화의 결과였다. ... 왜냐하면 다름 아닌 자본주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의 근대적 개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

웁스는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동성에 억압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웁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족제도와 연관지어 바라본다. 사실 모든 계급 사회에서 가족은 성적인 순종이 실행되는 주요 제도였다. 동성애자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가족 제도는 최대의 난적 亂賊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자본주의 가족인가? 자본주의 이전에도 가족은 있어왔지 않은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에서 가족이 똑같은 형태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예들은 가족을 가질 수 없었다. 사회적 노동력으로서의 노예의 재생산을 출산이 아닌 약탈로 충원하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사무라이의 일본 같은 봉건제 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가부장들이 가족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떠나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더 이상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주로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떠나 삶을 영위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처럼 가족은 역사적 상황(특히 사회적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서)에 따라 변해왔고, 결코 고정불변의 실체로써 인간 삶을 규정짓지는 않았다.

문제를 더 구체화시켜 보자. 근대적 동성애 개념의 생성과 자본주의 가족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가족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를 알면 된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가족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우연적인 일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파괴되거나 해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지배계급)이 가족이 소멸되어 사회적 생산이 중단되는 일을 걱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계급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체제이며, 기존의 모든 고정된 삶들을 변화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이다. 가족도 자본주의의 이러한 성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어느 나라건 초기 산업화 과정은 생산의 한 단위인 가족의 기초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기존의 노동계급 가족을 갈가리 찢어 놓는다. 여성과 남성과 아이들 모두가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은 '자유로운' 노동자로서 새로운 공장으로 끌려간다. 먼 도시로 가거나 이민을 가는 걸 통해 생이별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끔찍하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으로 그들의 '정상적인 가족 생활 비슷한 것'은 파괴되어 버리기 일쑤다. 그리고 독자적인 생활수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가족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은 계속 존재해왔고, 변성해왔다. 하지만 이전 사회의 가족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띄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노동력 공급에 의존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굳혀갔다. 또한 가족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노동조건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었다. 끔찍하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조건에서 땀을 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핵가족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노동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특정한 일자리에서 점차 배제시키고, '가족 임금'을 남성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도록 싸워왔다. 특히 여성들은 불임증에 걸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산업에서 배제되었다. 덕분에 영·유아의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졌고 여성의 수명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애들은 물론 잘 자란다는 식의 핵가족의 이상은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자본가들이 그런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족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계급의 가족 구성원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가족을 강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부과되었다.

여기에서 동성애자들의 비극은 시작된다. 동성애자들은 아름다운 핵가족의 이상에 걸맞지 않은 존재인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핵가족의 이상에 걸맞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미혼모, 이혼, 낙태 등)와 마찬가지로 공격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공격의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본주의가 가족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가를 더 이야기해야겠다.

첫째,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생산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생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가족은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고, 체계에 순응적인 미래의 노동자로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가 그 비용을 낸다는 의미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된다. 당장 이 나라에서 애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보라!

또 하나는 나날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남자는 보통 부인이 제공하는 가사노동으로 다음날 일할 노동력을 충당한다. 생산은 사회화되어 있는 반면 재생산 비용은 가족이 부담한다. 이것 또한 노동자들의 복지비용에 한 푼이라도 덜 쓰고 싶어하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둘째, 가족은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즉 병자나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과 수학기간의 연장 등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에서 가족이 소비의 단위가 되면서, 그것은 거대한 상품 시장이 되어왔다. 거의 모든 생필품이 "기성품"이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끊임 없이 집안 가꾸기나 안락한 가정생활에 대한 환상을 퍼트린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이러한 상품 전략에 속아넘어가 가족을 미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

넷째, 가족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만회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낸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은 노동이 끝나는 시간부터'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통제하는

걸 통해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다.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가족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 이데올로기"와 "어머니 이데올로기"가 강조된다. 자신의 초라한 생활에 대한 불평을 자본가가 아닌 가족에게 퍼부어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청소년 탈선문제 등 가족에게 요구할 것이 지배자들에게 너무 많다.

바로 이러한 가족의 역할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억압받는다. 위의 어떤 것도 동성애자들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족시키기는커녕 이러한 가족의 역할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득 때문에 가족은 개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족 해체적 경향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필요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적어도 소수에게는 성애性愛를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갑절로 중요해졌다. 오래된 촌락 공동체가 붕괴하고, 그와 더불어 교 회나 전통의 가치가 해은 억압이 사라졌으며, 젊은이들이 독자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대도시는 익명의 삶을 보장했다. 이 모든 것이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국가는 일련의 억압적인 법률을 만들고 본보기가 될만한 법정 사건을 동원해 모든 '비정상적' 성행위가 어떤 건지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별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2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성과와 한계점들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원인은 자본주의적 가족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활동가들이 이러한 가족제도에 맞서 싸워왔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실패했던 것 같다. 현실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이상을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적 법률이 없는 나라도 동성애를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핵가족은 여전히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남아있다.)

물론 동성애자 억압에 맞선 싸움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팔복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수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으며, 동성애 문제를 거리로, 학원으로, 대중매체로, 교회로 끌어들여 그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69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벌어진 스톤월 봉기는 세계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머리핀 떨어지는 소리가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매타친 협회의 평가는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 이 운동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남겼다.

이는 동성애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냈으며,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동성애를 인간의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유희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확실히 소수는 동성애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이전부터 훨씬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서구에서 동성애자 영화평론가, 동성애자 가수나 배우, 동성애자 텔레비전 프로듀서나 감독, 동성애자 디자이너, 동성애자 사장들은 커다란 억압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동성애적 취향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Pink Economy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며, 날로 그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동성애자 전체로 확산시켜 바라보면 거의 전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전염균으로 취급받고, 가족으로부터 배척 당하거나 직장고향에서 쫓겨나는 등의 상황이 더욱 일반적이란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순적인 상황은 그간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추구해온 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만든다. (약간 성급한 일반화일지 모르나, 필자는 일반화될 수 있는 몇 가지 경향을 분석하는 걸 통해 주장을 전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싸워 온 많은 투사들이 걸려 넘어진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들어보자.

첫째, 지금까지의 동성애자 운동가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의 원인을 주로 사람들의 무지(無知),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보면서, 동성애억압에 맞선 싸움은 잘못된 편견에 맞선 싸움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이 옳지 않은 두 가지의 전략이 생겨났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의 바른 생활태도를 보여주어 동성애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을 없애려는 전략이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된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교육과 선전이 중요해진다. 동성애의 정당성을 알리는 출판사업, 강연회, TV 출연, 영화제작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사람들의 활동은 그러한 매체의 영향력에 비례하며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많은 동성애자들을 고무했고, 동성애자 해방운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단지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좀 더 대중적인 매체에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가족제도를 공공연히 공격하고, 가족제도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 억압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이유로 동성애 해방운동에 대중적인 매체를 끌어들이려 했던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성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켜 좀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서구에서 유명한 동성애자가 TV 토크쇼에 나와 사회의 이성애적 편향을 비웃는 것은 이전 낯익은 것이 되었지만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당

당하게 이성애주의적인 사회를 공격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로 남아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행동을 통한 선전"인데, 현재의 사회체제 내에서 자본주의적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확대된 가족(공동체)의 방식을 실험하는 걸 통해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게이들의 결혼이나 레즈비언들의 결혼, 또는 게이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과 레즈비언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략은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으며, 동성애자들은 대도시에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생활에 있어 더욱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 따라서 많은 동성애자에게 동성끼리의 결혼과 자신들만의 공동체 건설은 또다른 대안으로 보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걸 통해 동성애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에 반대, 연금이나 의료보장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로부터의 제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방의 이론으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공동체 건설은 기존의 동성애 공동체가 성적적으로 너무 퇴폐적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퇴폐성이 지배자들의 공격을 유발한다는 인식 하에, 건전한 동성애 문화를 만드는 걸 통해 언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통 성적(性的)인 보수주의를 자신들이 장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동성관계에서도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며, 문란한 성관계를 척결하고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를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에이즈라는 마녀 사냥을 통해 그러한 공동체가 박살이 났던 것처럼 이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동성끼리의 결혼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족에게 부과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족제도를 흉내내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 가족에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동성애 가족을 이루는 일은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념을 양산해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척결하고 핵가족의 이상을 확대, 강화하는 것에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둔다. 따라서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동성애 억압의 물질적 기초인 자본주의를 공격하지 않고, 동성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는 것은 시지프스의 노동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가지고 있는 부문주의의 문제이다. 부문주의의 공식은 단순하다. 즉, 모든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다. 따라서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만큼 같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부문 정치는 전략 면에서 성적 취향이 같은 개인들의 정체성을 그 정치의 출발점이자 조직의 기초로 삼는다.

부문 정치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확실한 저항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부문 정치는 억압자들이 멀리하고 증오하고 격대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자존심과 자기 주장의 문제로 돌려버린다.

이러한 자기 주장이 자기 비하보다 훨씬 나은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동성애자의 공공연한 저항이 은폐된 곳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부문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명백하다. 부문 정치의 핵심 전제는 모든 이성애자가 모든 동성애자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제각기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억압은 동성애자에게만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여성이고 레즈비언이라면 그녀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야 할까?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게이라면 그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억압의 특성에만 기초해서 조직을 건설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꾸 갈게 쪼개 들어가게 마련이다.

미국에서 여성해방을 추구한 단체들의 경험은 부문주의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다. 개인의 정체성의 자각이라는 여성운동의 정치는 결국 정치적인 레즈비언과 이성애를 지지하는 여성들,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들 또는 아시아 여성들, 백인 레즈비언과 흑인 레즈비언 등으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부문들로 쪼개



저 다양한 여성 단체들 사이의 적대감은 끔찍한 수준으로 까지 나아갔다. 한 미국의 페미니스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성 단체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자매들을 다 죽일 정도이다.”

부문 정치의 또다른 핵심인 모든 동성애자가 억압받는다는 점에도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억압을 경험한다. 돈이 많은 동성애자는 상대적으로 맘에 드는 동성애 상대를 구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둘만의 공간에서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동성애자는 지저분한 곳에서 상대를 구해 지저분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돈에 쫓겨 데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돈이 많은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비웃음을 당하겠지만 자신의 주거(住居)나 생활 환경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동성애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들어도 다른 주거를 구하기 힘들다. 자본주의에서 동성애 성향으로 받는 억압과 삶의 조건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억압은 더욱 극심하기 마련이다.

좀 더 다른 현실을 말하자면 투쟁의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많은 동성애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총파업에 반대하는 대열에도 많은 동성애 사장들이 있었다.

현실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주의 가족을 공격할 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동성애 사장들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이성애 자본가들과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향 때문에 약간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받더라도 자신의 직접적인 이윤에 더 집착한다.

그러나 노동자 동성애자들은 더 많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임금)을 따내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도록 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같은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은폐된다면 자본주의 가족을 공격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간 이유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가족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돌려 이성애자들을 계몽하거나, 동성애자 개개인들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운동을 조직할 수 없다.

현실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을 자신의 투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투쟁에 모든 동성애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결국 계급 문제는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만 이러한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가족은 동성애자들을 배척하지만 또한 여성들을 가족의 굴레 속에 가두어 두려운다. 여성이 가족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은 부불(不拂) 노동으로 자본가들은 이 지급되지 않는 노동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있다.

카스 에니스 Kath Ennis는 그녀의 책 <여성의 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본가가 뽑아 내는 잉여는 단지 노동 하는 남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임노동과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해방의 문제는 동성애 해방의 문제와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여성 해방을 위한 싸움에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회 복지금 삭감에 맞서 싸우는 현실은 동성애자들이 환영해야 할 일이다.

모든 억압은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동

성애 해방에 진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억압에 맞선 싸움이 결국 착취에 맞선 싸움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서서히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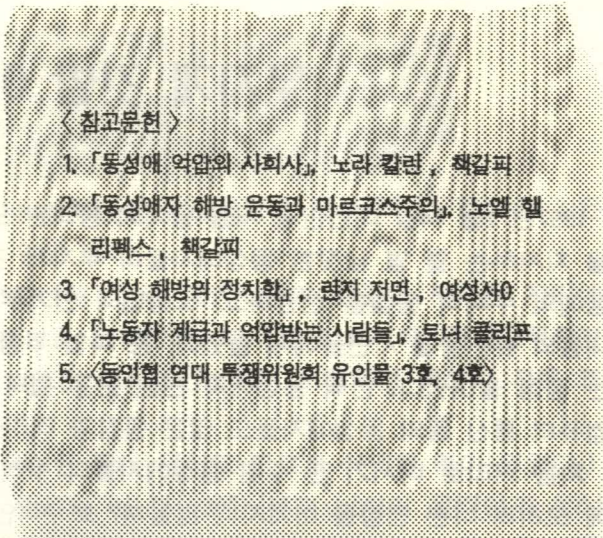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나간 이유는 노동자 투쟁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해방의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를 끝장 내는 노동해방 없는 동성애 해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끝장 낼 수 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투쟁은 자본주의 가족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들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명예 퇴직 바람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기운이 빠진 가장에게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등)을 강조하는 배경도 자신들이 유발시킨 실업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를 보내야 한다.

또한 노동자 계급의 일부분이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억압을 이해하고 같이 싸워야 한다.

우리는 사실, 같은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동성애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 책갈피
2.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노엘 헬리팩스, 책갈피
3. 「여성 해방의 정치학」, 린지 저먼, 여성서0
4.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 토너 콜리프
5. <동인협 연대 투쟁위원회 유인물 3호, 4호>

♥ 이 글은 서울 시립대 교지 대학문화에 실린 글입니다.



무지개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

1997년 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열 명 남짓한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집회현장에 모였었다. 이들은 총파업 투쟁에의 주체적 동참을 선언하고, 노동법과 안기부법 반대 및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거두어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총 파업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지개 깃발 아래 선 동성애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한국 동성애자 인권 운동 협의회는 발빠른 지원을 보내주었고, 153전화사서함 서비스, 컴퓨터 통신 등의 동성애자들도 많은 동참과 격려를 보여주었다.

처음 거리로 나서기 전 주위 동성애자들의 우려가 없진 않았다. 무지개 깃발을 내건 동참이 전체 투쟁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보수적인 언론들이 왜곡된 시각의 보도를 낸다면, 투쟁의 진지함이 희석되거나 동성애자들이 희화화되지나 않을까? 또한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지금의 정세가 우리가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안일한 상황인가? ...등

무엇이든 첫 번째라는 것은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동성애자가 호기 심과 질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

이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어본 경험이 전무한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세상의 반응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동성애자들을 동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급성과 섹수얼리티가 충돌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어야 한다.

결국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라는 명제를 되새기며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동성애자들이 위험부담을 안은 채 기꺼이 선행의 불꽃을 자청하고 나섰다. 아직 평가를 내릴 시기는 아니지만, 집회에 참가하기 전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은 우려로써 그쳤다. 의외(?)로 노동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연대에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시위에 참가한 동성애자 동지들도 자긍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회장에서 어느 노동자는 "동성애자 연대하여 노동악법 박살내자" 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유인물을 가지고 동성애자에 대해 토론했다는 노조도 있었다. 집회 때마다 무지개 깃발을 찾아와 유인물을 챙겨 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언론의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숨어있던 동성애자 동지들이 무지개 깃발을 보고 찾아와 비로소 뽐낼하기도 했다.

나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무지개 깃발 아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파업시위와 노동자의 계급성 및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고자 고민했으며, 이제 파업시위와는 별도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현실과 자신의 성적체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까지 이르렀다. 동성애자의 다수가 계급적으로 노동자라는 사실 이외에도 동성애자들이 하나의 대오로 모여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정리 해고제나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 같은 개악된 독소조항들은 동성애자들의 입지를 위축시킨다. 노동자가 천만 명이고 최소한 전체 인구의 5%가 동성애자라고 할 때조차 50만 명의 노동자 동성애자가 있는 셈이다. 배경이 없을 뿐 아니라 비호해 주는 조직도 없고, 도덕도, 이데올로기의 방패막도 없는 동성애자들은 가장 먼저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되어 정리해고 대상 1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와 동성애자는 연대할 수 있을까... 해묵은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 '동성애'는 있었을 지언정 '동성애자'는 없었다. '탄압 받아 마땅한 동성애자!'의 탄생은 성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의 발전에 의한 부산물이다. 은연중에 이성애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유포시켜온 자본주의가 걸어온 길은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안기부법의 부활...대선을 위한 집권당의 준비작업. 1950년대 미국, 매카시즘의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주의자로 몰려 숙청 당했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다시금 불고지피, 찬양고무죄가 부활되어 사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얼마 전 시행령이 발표된 정보통신법마저 시행되면 통신의 자유 또한 박탈당할 것이다.

(이미 어느 통신모임의 알림방에 올랐던 이번 사태에 관련된 글이 시삽도 모르게 삭제된 일이 있었다.)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동성애자는 탄압의 대상이 된다 중세의 마녀사냥에서부터 나치의 유대인과 동성애자 사냥, 냉전시대의 빨갱이 사냥, 에이즈 시대의 동성애자 사냥에 이르기까지 지배집단은 분노한 민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도덕과 관습을 동원, 힘없는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고 매장시켜왔다. 안기부법의 인도를 받으며 제발로 뛰어들어 걸어 들어갈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애기한테도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 사건 자체가 문민정부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몰락은 전체주의의 부활이라는 악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 아래서 소수의 의견은 목살되며, 지배자의 이익에 어긋나는 모든 계급, 사상은 탄압 받는다. 민주주의의 몰락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야기 할 공간을 박탈시키고 억압과 차별,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킨다. 눈앞의 삶 외에는 무관심하게 만든다. 아무튼 97년 연초에 불어닥친 동성애자들의 집단 행동은 앞으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방향 뿐 아니라, 한국동성애자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국내 최초의 집단적 커밍아웃이 이루어졌으며, 동성애자들의 세상 참견이 시작되었다. 골방에만 모여있던 동성애자들은 정치 사회적 현실과 동성애자로서의 개별적 삶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직적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는 이후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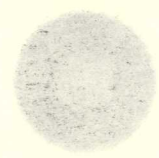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이 철회될때까지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깃발 아래 계속해서 모일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동성애자는 주류에서 이탈한 가십거리로 남아있을 것인가. '한국 동성애자 인권 운동 협의회'는 사상이 의심스런 반정부 단체로 낙인찍히고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인가. 심지어는 당장 속죄양이 되어 탄압이 시작될 것인가.

동성애자를 보던 편견이 조금이라도 바로 잡히고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받을 것인가?

혹시라도 대선 때가 되면 대권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좋다. 마침내 우리의 역량은 강화될 것이기에...

♥ 이 글은 '또 하나의 사랑'에 기고한 명안(JJOOHTUN)님의 글을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할때 ...

(이 책자를 읽는 이성애자분들께)

동성애자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커밍아웃(coming out)한다는 것은 벽장(closet)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벽장 속에 숨어 지내다 자기 자신의 동성애적인 면을 꺼내어, "내게 이런 면도 있어.."하며 자기자신을 나타내는것이죠.

보통사람에게 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 하게되면, 그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커밍아웃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황당하다거나,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자기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성애자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부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할 경우 대비해서, 너무 황당해하지 않으시도록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나열 해봅니다.

1. 우선 축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 속에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성애자가 되기 싫다면, 동성애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는데, 그 대상이 동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기때, 보기 안쓰럽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사랑이란 감정을 전혀 못느낀다든가, 사랑보다는 돈을, 사랑보다는 명예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랑의 불구자"가 되기보다는 훨씬 낫다는 점에서 그 성장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신에게 커밍 아웃할 정도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동성애자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어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친구,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로 비밀 없이 지내며 사귀어 왔던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비밀로 남긴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에 커밍아웃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크나큰 위험부담을 안고 말하게 되죠. 정말로 커다란 신뢰감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 우정과 신뢰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3.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셔도 됩니다.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신다거나, 또는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근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밍아웃할 때쯤엔 대개 짝사랑의 경험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상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커밍아웃하는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4. 다른 친구들과 모일 때 같이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커밍아웃하기 전과 다름없이 한'사람'으로 대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죄로 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로서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친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좋습니다.

5. 서로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밍아웃을 하게되면 무슨 큰 죄라도 고백한 양, 상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무척 불안해지기도 하며, 연락을 잘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혹시 멀어진 건 아닐까하는 조바심에 상대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커밍아웃은 사랑의 고백과는 조금 다니다. 사랑의 고백은, 되돌아오는 상대의 사랑을 기대하지만, 커밍아웃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관계에 대한 "재신임"같은 면이 크죠. 좀더 사랑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전 인격에 대해 가림 없이 지내고 싶다는 튼튼한 우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6. 자신이 잘하는 일로 도와주시고, 커밍아웃하는 당사자가 잘하는 일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삶으로 인정해주시고, 서로 돕는 이웃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중에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감각적인 것에 빠르고, 예술적인 분야에 남다른 안목을 지닌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한, 사회의 편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기에 사고방식이 보다 유연하며 진위적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과 건강한 사고를 원하신다면 동성애자 친구를 몇 명 가지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



7. 동성애자로서 일반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편견이 없는 사회라면 동성애자라는 명칭부터 있지 않겠죠. 편견이 있기에 커밍아웃도 하며, 오랜 세월 애써 가꿔온 우정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곳 또사모에 올라오는 글들, 보통 사람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눈물이 핑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려는 동성애자들이 보기 좋지요. 눈물을 쓰으 닦고, "괜찮아"하며 편견 없는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 껴야" 하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8. 섹스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섹스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다양하기도 하고 둘만의 비밀스런 면도 있습니다.(굳이 묻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섹스에 대해서도 답할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요)

9. 동성의 친구가 커밍아웃 하는 경우 "남 사랑하는 거 아닌가" 같은 의심이나, "남 사랑한 적 있어?" 같은 질문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당사자에게는 커밍아웃 하는 자체만으로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당신 자신의 이성애적인 성향도 그에게 이해 받고 존중받기를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면, 자기를 여성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됨에 대한 불안감이죠. 하지만 대개 남자 동성애자가 남자에게 끌리게 될 때, 상대를 여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사람됨, 남자다움, 멋있는 점등에 끌리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사랑을 갈구하기에, 자신이 여자였다라면 좋았겠다 같은 상상을 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이면 아무나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선 무척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까다롭기에 그 사랑의 대상을 찾는 일에 많이 지치곤 하지만, 이성애자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듯, 동성애자의 경우도 우정이 필요합니다. 친구로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 같이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커밍아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해서 상대가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

10. 커밍아웃 하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비밀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의 일생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의 편견의 벽은 높기에, 어떤 이유로든 당신 자신이 친구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 없다해도, 당신 자신의 선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그 친구의 신뢰에 대한 최소한 예의입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신뢰였기에.

11. 그(그녀)에게 친근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11. 그(그녀)에게 친근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오해할까 하는 우려로 인해 친근함을 애써 감추려 하거나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이고 싶기에 이성애자들의 성향도 존중해 줍니다. 여태까지의 오랜 친구로서의 친근함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12. 마지막으로, 커밍아웃 하는 친구에게 위와 같이 대해 주신다면, 당신 자신에게서 한 마디쯤 다음과 같은 용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나도 괜찮은 놈이야...호호~"

♥ 이 글은 '또 하나의 사랑' 게시판 추천글에 기고한 서원석(joycity)님의 글을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